

August Konkel 박사, 잠언, 세션 6

© 2024 August Konkel 및 Ted Hildebrandt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이번 세션은 여섯 번째, 생명나무로서의 지혜입니다. 잠언 3.13-20.

잠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가 아이와 나누는 인생의 지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삶을 마감할 때 지혜의 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다양한 막간으로 인해 중단됩니다. 이러한 막간 중 하나가 잠언 3장에 나오는데,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13-20절입니다.

이제 생명나무로서의 지혜에 대한 이 그림은 우리가 앞으로 강의에서 보게 될 것처럼 생명나무가 잠언에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숙고해 볼 만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또한 생명나무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와 그 안에서 기능하도록 우리의 삶을 명령하신 모든 방식의 기본이 되는 무엇인가라는 개념은 지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8장에서 그것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의 이 작은 부분은 사실상 앞으로 나올 장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개념은 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복 있는 자들을 정의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지혜를 배운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품성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복되다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인데 여기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녀는 은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장수를 허락합니다. 그녀는 생명나무이다.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모든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카테고리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생명나무인가? 과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 조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도 생명나무가 있지만 현재에도 생명나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알고 있는 과거의 생명나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심으셨으니 곧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라.

이제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생명,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생명은 우주에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제외한 우주는 단지 광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물질과 광물 그 이상으로 모든 세상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한 정원에는 항상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삶은 선천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호흡으로 호흡을 주시고, 심장박동으로 심장박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의 나무는 선한 것을 아는 지식 또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식의 나무를 붙잡고 뱀의 말대로 선악을 알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에 대해 읽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계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시의 결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성취이자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강이 있고 그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죽음은 없습니다. 삶은 연속적이다. 접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생명을 주신 자, 세탁한 옷을 입은 자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이 거듭 강조하는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거기에 히브리어 아세라로 묘사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13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의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 걷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나 주님의 교훈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것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아세라는 무엇인가? 그 축복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자주 언급되는 거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를 선택하여 그의 삶, 사실상 그녀의 삶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왕국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는 신약성경의 현대 히브리어 번역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세라는 당연히 그들이 사용할 단어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는 없지만 특히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그것은 마카라(makaras)이고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마카리즘(makarisms) 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께서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그들은 자신이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좋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도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이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종하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에 굽주려 있습니다.

물론 잠언에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무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 나무는 이 축복을 낳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9절과 20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고 총명으로 하늘을 세우셨습니다. 깊은 바다가 형성되고 위의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을 그분이 아시느니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질서 전체가 작용하는 신비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질서의 일부로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떠해야 할 방식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이 개념은 토라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명의 길을 따르고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메노라로 상징됩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메노라는 성전에 있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등불은 실제로 일곱 등불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명 모두에게 생명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보면 나무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나무는 유대인들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이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정복자인 티투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지 약 70년이 되었을 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그들에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저항 운동을 영원히 분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오늘날까지 로마에는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입구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로마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일종의 상징적인 입구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묘사하는 것과 이 아치에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것은 메노라입니다. 이것은 이 생명나무를 표현하거나 여기 잠언이 말하는 지혜, 즉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지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생명나무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보편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옷을 빨고, 우리를 그 생명나무로 다시 데려갈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이 길을 계속 가면 끝이 인생이라는 현자의 가르침에서 발견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 끝은 죽음입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내가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두었다 .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이번 세션은 여섯 번째, 생명나무로서의 지혜입니다. 잠언 3.13-20.